



왕의 곡물 카무트

다이어트부터 혈당 조절까지 가능하게 함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최근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주목받는 슈퍼 곡물이 있다. 카무트(Kamut)가 그 주인공이다. 카무트는 지난 2015년 미국 타임지에서 건강한 식품 50가지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정식 수입되면서 즐겨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된 고대 곡물이며 정식 명칭은 '호리산 밀'이다. 카무트는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되었던 원시품종인 호리산 밀 중의 하나이다. 이집트 왕인 투탕카멘(Tutankhamun)의 무덤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왕의 곡식'이라고도 부른다.

일반 밀에 비해 크기가 크고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도 되고 건강에도 좋아 생명의 씨앗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무덤 속에서 무려 4000



배 높고 마그네슘까지 들어 있어 당뇨병 개선에 매우 좋은 식품이다.

셋째, 다이어트 효과

여 년간 살아 남아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 곡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카무트는 일반 밀에 비해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및 무기질이 풍부하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 다른 곡물과 비교해 보면, 카무트의 열량은 귀리(100g 당 389kcal)보다 낮고, 식이섬유는 현미(200g당 3.6g)의 약 2배에 이른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으면 물과 결합하면서 점도가 높아져 당질의 확산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제격이다.

카무트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특히 셀레늄은 일일 권장섭취량의 약 100%에 해당하는 양이 포함되어 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체의 조직의 노화와 변성을 초래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고,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부터 카무트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노화 방지
카무트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셀레늄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우리 신체조직의 변화와 조직의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당뇨병 개선

카무트는 당뇨병 개선에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카무트 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혈당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GI지수(혈당지수)가 40으로 현미(65), 귀리(69)보다 더 낮고 섬유질과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탄수화물이 백미보다 적고 현미와 비슷하며, 단백질 함량이 백미보다 1.5

칼로리가 낮은 곡물로 체중관리에도 도움을 주는데 일반 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량 유지와 증가에도 좋다. 특히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랜시간 동안 유지시켜 식욕을 조절해 주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율을 높여줘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게 해준다.

넷째, 면역력 증가

카무트에는 셀레늄과 마그네슘, 유산균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적이다. 비타민B는 면역 세포 기능을 지원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아연은 면역 반응을 조절해 주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항암효과와 변비 예방 효과, 혈관질환 예방 효과 등이 있다. 이처럼 카무트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 복용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 80~100g을 지켜야 부작용을 면할 수 있겠다.*

이승우 기자

[제4편] 이만제단시대 제1부

一. 광야의 외치는 소리

- 1) 박태선 장로의 영적 변화와 초자연적 치유의 시작
- 2) 사역의 시작과 '불의 사자'로서의 부흥 집회
- 3) 기성 교권주의자들의 반발과 이단 규정
- 4) 전도관의 창설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

二. 하나님의 쫓대는 전도관으로 옮겨졌다

三. 광야에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라

一. 광야(曠野)의 외치는 소리

1) 박태선 장로의 영적 변화와 초자연적 치유의 시작

박태선 장로님은 이른바 '3단계 성령'을 받은 후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변으로 피를 쏘아내는 정화 과정을 거쳤으며, 몸에서는 백합꽃과 같은 진한 향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는 곧 타인을 치유하는 강력한 이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용산역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 환자 치유입니다. 당시 기차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어 가마니에 덮여 있던 한 남성을 목격하게 된 박태선님은 "저 사람을 살려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른 장백한 환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한 박 장로님은 '안찰(按察)'을 통해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전달받으며 고통스러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세 시간 가까이 안찰을 지속한 결과, 환자의 안색이 돌아오고 의식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는 깨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 박태선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사모님과 큰아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것이 무슨 냄새야? 참 좋은 냄새가 나는데. 엄마 뭐 맛있는 것 몰래 감춰 둔 것 아니야?" "글쎄다. 엄마도 아까부터 이 냄새를 맡으면서 무슨 냄새가 하고 생각하는 중이다." 이런 모자기간에 대화를 들으면서도 당신을 통해서 나는 향취라는 사실을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2) 사역의 시작과 '불의 사자'로서의 부흥 집회

1954년 3월, "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박태선님은 1955년 1월 1일에서 1월 7일까지 서울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회에서 집회를 시작한 것을 시발로 전국 교회의 초청을 받아 순



▲ 복을 치고 전도하는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찬송하는 기사이적(奇事異跡)이 일어남

회집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포스터에는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라는 타이틀이 대대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박태선님이 전하고자 했던 본질은 '이슬 성령'이었으나, 당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불같은 성령만 알고 있는 까닭에 이슬성령 운운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여 당장 이단이요 마귀라고 질타하면서 초장에 매도당할 것을 생각하여 첫 단계 성령인 불의 성령을 염두에 두고 '불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집회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35장 5-6절에 예언된 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며, 병어리가 말을 하는 등 무수한 불치병 치유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폭포수 같은 이슬성령이 내리고 향취가 진동했습니다(호14:5).

안찰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매우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 고통은 죄 때문이라고 박태선님은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돼지 먹따는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정도 받으면 통증은 사라지고 시원해지면서 받으면 받을수록 상쾌하고 생수가 통하곤 하였습니다(요한복음 7:38). 이리니 그분의 집회가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집회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집회 규모는 점점 커졌고, 1955년 3월 28일에서 4월 5일까지 남산공원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어서 한강 백사장 집회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심지어 기성 교회의 목사들조차 체면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그분을 찾아와 안찰을 받았고, 안찰을 받은 목사들 중에는 능력이 생겨 자기 교회로 가서 교인들에게 안찰을 해주는 목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3) 기성 교권주의자들의 반발과 이단 규정

리라(마3:11)"라는 세례요한의 말을 인용하며 성령세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성경구절을 읽어주면서 성령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이라고 사정없이 비판하였습니다.

박 장로님은 기성교회의 형식적인 물세례를 비판하며, 성령세례를 통한 중생(重生= 거듭남)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분은 안찰을 통해 교인들이 직접 성령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수도물을 축복하여 만든 '생수'를 통해 불치병을 치료하고,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는 '생수 축복' 이적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관에만 구원이 있다는 믿음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장로님의 역사를 기성교회에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박장로님의 역사는 성경에 부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행주 수건이나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있으면 병이 나뉘더라(사도행전 19:11~12)" 영모님(박장로님을 지칭)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을 발한 것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성령이 묻어 나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성 교단과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초기에는 박태선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목사들이 많았으나, 점차 자기 교회의 교인들이 박태선님의 집회로 몰려가 교회가 텅 비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문제를 넘어 목회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경제적 위기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1956년 2월 15일 경기노회에서 박태선 장로를 이단이라고 결의하고 박장로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은 제명한다는 공문을 경기지역 교회에 띄웠습니다. 이후 전국 총회에서도 박장로를 이단이라고 결의하여 전국 각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병어리 개라.(사56:10)" 여기서 파수꾼들이란 하나님의 목자라는 목사들을 말합니다. 파수꾼은 양떼들에게 도적이 오는지 늑대가 오는지를 지켜보면서 양떼를 보호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그 목자 즉 목사들이 다 소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목사들은 '전부터 앞을 못보는 소경'이기 때문에 파수꾼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병어리 개'라고 하였으니 도적이 오거나 늑대가 오면 짖어서 양떼들에게 경계를 시켜야 하는 것이 목자인 목사들의 의무인데 병어리 개가 되었으니 도적이 와도 늑대가 와도 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개들은 탐심이 있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무지한 목자들이니 다 자기 길을 행하고 사방으로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도다(사56:11~12)"

'병어리 개'와 같고 '탐심이 가득한 목자들'이 박태선님이 하늘의 역사를 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를 이단으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지라(눅16:3)"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늘의 큰 뜻을 방해하는 우매한 목자들의 말로(末路)는 시간만 조금 연장될 뿐이지 바침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단에 계속

(이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찔든 이러한 조직적인 탄압으로 인해 한때 인산인해를 이루던 집회에 발길이 끊기는 등 시련이 닥치기도 했으나, 박태선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잠시 조용히 침거하면서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4) 전도관의 창설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

기성 교단의 기득권 수호와 배척으로 인해 더 이상 기존 교회 체제 내에서의 사역이 불가능해지자, 박태선 장로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심합니다. 1956년 초,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철공장을 개조하여 예배당을 마련하고 '전도관(傳道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격암 남사고의 '격암유록'에 예언된 이름이자, 박태선님이 인류를 구원할 영적 황제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500년 전 남사고 선생은 『三八木運始皇出(삼팔목운시황출) - 격암유록 '농공기』 "삼팔목운 박태선 장로님은 인류를 살리시는 첫 번째 영적(靈的) 황제로 출현하시느 분이이다"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世上不知寒心事(세상부지한심사)』 "세상이 몰라서 박태하니 한심한 일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철공장 전도관에서 가진 첫 집회에 모인 사람수는 80명이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는 역시 엄청난 은혜와 진동하는 향취로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미친 듯 술에 취한 듯 열광케 하

여 무아지경에 빠뜨렸습니다. 불치의 병자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새벽 예배 중 성령의 불길이 너무나 강렬하게 치솟아 인근 주민들이 대형화재로 오인하고 용산 일대의 소방차 수십대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 체험의 소문은 다시금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교회의 제명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들었던 교회를 버리고 전도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원효로 일대는 몰려드는 불치병의 환자들과 신도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전국 여기저기서 전도관이 세워졌고, 또 박태선 장로님을 모셔가려는 사람들로 박태선 장로님택은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인들의 요청에 전국을 순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중반에 서울 원효로에 웅장한 '이만제단'을 건립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전국에 전도관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며 한국 종교사에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二. 하나님의 쫓대는 전도관으로 옮겨졌다

박태선 장로님은 처음 기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하나님의 쫓대가 전도관으로 옮겨졌다"고 강론하



이만제단

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쫓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시록 2:5)"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기성교회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으며, 오직 전도관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구원의 방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성교회의 영적 불이 꺼졌음을 선포하며 전도관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구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성령은 특수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고 일반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간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너희로 회개하게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

마찬가지의 원리로 박 장로가 물에다 손으로 축복을 하면 수도물이 성령이 충만한 생명물인 생수가 된다고 외치시니 기성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어리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박 장로님은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강조하며 감동적인 설교를 했으나, 이는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마귀를 속이기 위한 '기만전술'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예수를 조작된 구세주로 규정하고, 진정한 구세주를 배척하기 위해 잠시 예수를 앞세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三. 광야에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서의 예언(사40:9-11)을 인용하여, 박 장로 본인의 사명을 '광야에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성경의 세례요한과 예수의 관계는 그림자 모델이며, 박 장로님은 소사(素素)라는 장소에서 승리자 구세주를 출현시키기 위한 '엄마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박 장로를 거쳐 총세 본의 하나님이 합일되어 '완성된 이기신 하나님(삼위일체)'으로 나타나고 과정은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박태선 장로님은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전도관이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광야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구세주 하나님이 임재할 길을 닦았던 것입니다.*